

중동 석유화학 테러공격 우려 고조

Yanpet MEG 증설공사 직원 5명 살해 ... 플랜트 손상 입지않아 다행

중동 테러리스트들이 사우디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추가 공격할 가능성이 대두돼 우려되고 있다.

9.11 미국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빈 라덴을 비롯한 중동의 강경 테러리스트들이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실패를 공언하며 강력대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테러리스트들은 2개월 전 Yanpet의 사우디 Yanbu 소재 EG(Ethylene Glycol) 증설공사 건설현장을 공격해 ABB Lummus Global 직원 4명과 건설인부 1명을 살해한 바 있다.

Yanpet은 No.2 EG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44만톤에서 58만톤으로 14만톤 증설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Yanpet은 사우디 Sabic과 ExxonMobil Chemical의 50대50 합작기업으로 No.1 EG 40만톤 플랜트도 가동하고 있다.

다만, 테러공격에도 불구하고 EG 플랜트는 손상을 입지 않아 EG 수급전망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abic은 2004년 들어 EG 아시아 Spot가격이 톤당 80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Sabic은 100% 자회사 Jubail United의 EG 플랜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Dow Chemical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EG 생산기업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Jubail United는 2006년 가동 예정으로 Al Jubail에 No.2 EG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Sabic은 2008년까지 EG 생산능력을 520만톤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직접 건설하는 Yanbu의 60만톤 및 Sharq가 Al Jubail에 건설할 예정인 60만톤을 포함한 것이다.

Sharq는 Sabic과 일본 컨소시엄의 합작기업으로 최근 Yanbu의 에틸렌(Ethylene) 130만톤 크래커 콤플렉스 건설에 착수했다.

<화학저널 2004/09/13>